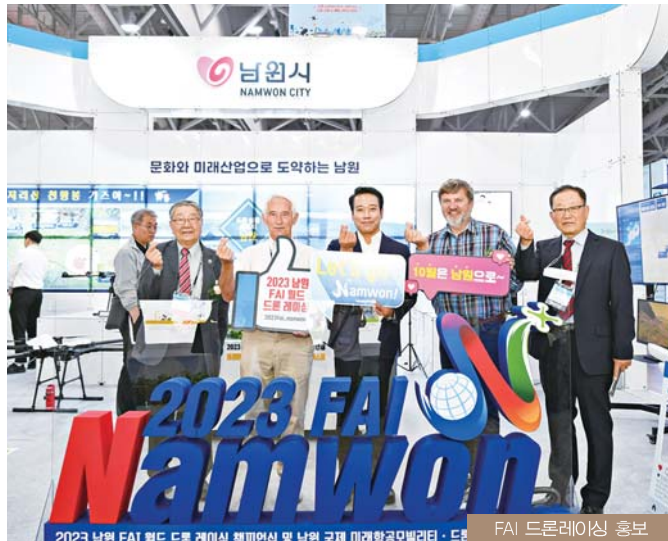


#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대규모 축제 '한상차림'

**선** 선선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여행 가기 참 좋을 때이다. 예전 같으면 이 날씨가 수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전국을 찾았겠지만 요즘 같이 여기저기 축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때면 축제여행도 사뭇 괜찮다. 이럴 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원에서는 10월 초부터 대규모로 축제 진수성찬을 차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최초로 펼쳐지는 FAI 남원세계드론레이싱대회 등이 포함된 '2023 남원세계드론제전(10월 6~9일)'을 필두로 남원 대표 가을 축제 흥부제(10월 7~9일), 남원 문화재야행(10월 7~9일), K-명승(공한루원) 달빛유회 야간관람까지 같은 기간에 다채로운 행사들을 한 상 차림으로 연달아 차린다. 그야말로, 남원 곳곳에서 사방팔방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펼쳐지며, 남원의 밤 풍경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그 면면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창공에서 펼쳐지는 스릴만점의 드론 레이싱... 2023 남원드론세계대전 남원에서 드론으로 하나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전 세계 최고 드론레이서가 모이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통해서다. 남원시가 신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드론의 향연, 2023남원세계드론제전은 'New Wonders Namwon!'을 컨셉으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동안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세계드론제전 포스터

세계드론제전은 크게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2023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 △2023 남원 세계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된다. 이 중 최고의 관전 포인트는 국내 최초로 남원에서 치러지는 FAI(국제항공연맹)가 공인한 최고권위 대회인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드론레이싱은 코스에 따라 설치된 장애물을 피하며 FPV드론을 1인칭 시점으로 제어해 경주하는 스포츠로, 드론레이싱 부문 최고권위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는 35개국 500여명의 선수단 및 대회관계자가 참여, 다채로운 드론 레이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남원 세계드론제전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3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도 개최된다. 이 박람회에서는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드

### 드론세계대전 <<

6~9일 종합스포츠타운서  
FAI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드론공연 남원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론의 내일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으며,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을 주제로 한 국제 드론산업 컨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도 선수 입장식과 함께 국가개막, 트랙·성화 점화, 포레스텔라의 클로징공연, 드론쇼, K-POP콘서트도 진행되는 '대한민국 드론공연 남원 페스티벌'도 대단한 볼거리. K-POP콘서트에는 장윤정, 코요태, 육중완밴드, 비오가 출연 예정이며, 또한 폐회식에서는 드론레이싱대회 시상식과 함께 비(정치훈)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흥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축제... 제31회 흥부제 남원의 봄에 춘향제가 있다면 남원의 가을엔 흥부제가 있다. 바로 남원 인월면 성신리와 이영면 성리가 '흥부전의 발상지'로 알려졌지만 데다 오래전부터 두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박첨지 설화와 흥부 설화에 근거해 '흥부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남원시가 '흥부제'라는 이름으로 1993년부터 매년 축제를 기획, 시민 화합형 문화축제를

### >> 흥부제

'흥부가 예술이야' 주제  
7일 멀티프라자 광장서 개막  
흥부가족상 3분야로 확대  
흥부 재해석한 공연 다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

선보이고 있기에, 올해로 31번째 남원의 가을을 물들여 온 흥부제가 보다 색다른 모습으로 무장하고 시민들 곁으로 찾아온다. 제31회 흥부제는 한 마디로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축제로 축약된다. 흥부 가족의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을 계승하는 축제성격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으로 구성, 시민들의 흥을 돋우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올해 흥부제는 '흥부(興富)가 예술(藝術)이야'를 주제로 흥부제 정체성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쉴 새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7일 멀티프라자 광장 특설무대에서 그 막이 오르며, 축제의 서막을 여는 개막식에서는 예년처럼 기념식과 아이돌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처럼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1명만 수여했던 흥부가족상의 격을 높여 흥부제 정신인 우애, 보은, 나눔 이렇게 3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귀감이 되

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1명씩 총 3명에게 수성하게 해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물질만능의 세태를 흥부전 스토리에 담아 인기 트롯가요로 구성해 만든 뮤지컬인 MZ흥부전부터 박력있는 태권도 공연에 흥부전을 담아낸 태권 흥부전 그리고 전통 국악으로 흥부전을 즐길 수 있는 전통창극 흥부전, 마지막으로 모래를 이용해 흥부전의 명장면을 연출하는 샌드아트 흥부전 등 흥부를 재해석한 다양한 공연 등이 가득 채워져 있다. 남녀노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 넘치는 여러 지역의 국가무형문화재 공연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남원(흥부)-우호(友好)도시 문화교류의 장(場)인 '남우문장' 공연 등이 그것. 이 참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진주길출, 양산별산대, 남원농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즐거운 공연도 이어진다. 전복을 대표하는 블루스밴드, 전통무용, 판소리 플라보공연인 ATS 밴드공연과 싱가포르 최대축제인 칭게이 퍼레이드 초청 댄스팀인 포스댄스컴퍼니의 댄스퍼레이드 또한 관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한편 흥부 정신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비빔밥 1만개를 나누면서 펼치는 흥부비빔밥 나눔행사와 시민노래자랑은 물론 흥부 나눔 명랑운동회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흥부제에서는 남원농악을 한 자리에서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흥부극 남원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해 흥부제의 대가 강도근 소리꾼을 기리는 '제31회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그동안 흥부제와 역사를 함께 해온 흥부 백일장·그림그리기·독후감 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열린다. /남원=김기두기자



드론 UAM 박람회 참관

